

프로필렌 코스트 무려 20.4% 상승

한국은행, 7월 가공물가 3.9% 상승 ... BTX 계열제품 대폭 올라

국제유가 급등으로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상승률이 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.

한국은행이 발표한 <7월 가공단계별 물가동향>에 따르면, 7월 원재료 및 중간재 물가는 전년동기대비 3.9% 상승함으로써 4월(5.1%) 이후 3개월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.

원재료 물가상승률은 19.6%로 역시 4월(20.3%)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.

국내 수입원유의 80%를 차지하는 중동산 원유의 기준유종인 두바이(Dubai)유 현물가격이 7월 배럴당 52.8 달러로 크게 오르고 고철, 천연고무 등 원자재 가격과 석유화학제품, 금속1차제품 등 중간재 가격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.

원재료·중간재 물가의 전월대비 상승률도 7월 2.0%로 6월(0.4%)에 비해 급등했다.

중간재는 석유·화학제품과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이 국제유가 상승으로 오름세를 보이고 금속1차제품과 전자부품,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도 올라 전체적으로는 전월대비 1.4%, 전년동월대비 0.7% 상승했다.

제조용은 SM, M-X, 벤젠 등 화학제품이 오름세를 보이고 전기동, 에나멜동선 등 금속제품도 올라 전월대비 1.1% 상승했다.

건설용도 나동선, 동관, 강관 등 금속제품과 아스팔트, 건물석 등이 올라 전월대비 0.1% 상승했다.

특히, 연료·동력용은 경유, 방카C유, 제트유 등 석유제품이 오름세를 보이고 부탄가스, 프로판가스도 올라 전월대비 4.3% 급등했다.

중간재물가 상승률(2005.7)

(단위: %)

구 분	등락률	주 요 등 락 품 목
제 조 용	1.1	나프타(9.4), 전기동(14.2), SM(14.8), M-X(13.5), TPA(7.7), 동(6.9), 벤젠(8.0), 프로필렌(20.4), 에나멜동선(5.5)
건 설 용	0.1	나동선(6.2), 동관(6.8), 아스팔트(6.0), 강관(5.2), 절연전선(3.6), 흙관(2.2), 건물석(1.8), 회주물(10.4), FRP제품(3.9), 보일러(2.6)
연료·동력용	4.3	경유(10.5), 방카C유(4.6), 제트유(8.7), 등유(4.6), 휘발유(3.0), 증기(5.4), 부탄가스(3.9), 프로판가스(3.9)

+ 굵은 글씨는 수입품목

최종재물가의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6월 -0.3%에서 7월 0.4%, 전월대비 상승률은 6월 -0.5%에서 7월 1.2%로 상승추세로 전환됐다.

<화학저널 2005/08/22>